

가. 변희재의 유쾌 발랄한 獄中記

1) 유쾌한 드루킹·강용석, 만어른 이병기, 꽃꽂한 남재준...

글 :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 거침없이 時事문제 논하고, 이재용·신동빈 얘기하던 옆방 미남 죄수, 알고 보니...
- 痛風 때문에 휠체어 타고 나타나자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놀라서 달려와
- 드루킹, "나는 노회찬에게 돈 준 적 없다"고 주장
- 조폭 거물, "보수 인사들은 여기 들어와서도 너무 조용... 임종석이 대학생 때 함께 수감 생활했는데, 밥그릇 던져대고 난리였어"
- 필자 변호인이었던 강용석 변호사, 갑자기 囚人 되어 나타나... 잡범들과 잘 어울려 교도관도 혀 내둘러

변희재

1974 년생. 서울대 미학과 졸업. 前 미디어워치 대표. 現 미디어워치 고문 / 저서
《손석희의 저주》《변희재의 청춘투쟁》《스타비평》



2018 년 5 월 23 일, 최순실 2 심 공판에 태블릿 PC 를 검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나기현 공업연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JTBC와 검찰은 “국과수에서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55페이지짜리 국과수 보고서에 그런 대목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여러 개의 계정 메일 사용을 근거로, 여러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즉 애초에 필자가 주장한 대로 최순실 개인의 태블릿이 아니라 청와대 공용 태블릿이라면, 청와대 문서가 저장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 태블릿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나기현 공업연구관은,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느냐”는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의 질문에 단호히 “없다”고 답했다. 또한 특정 사용자를 가려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카카오톡 대화록에 대해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미디어워치’는 즉각적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반면 그간 JTBC와 검찰의 주장에 반하는 증언이 나오자, 현장의 타(他) 매체 기자들은 전혀 기사를 쓰지 않았다. 또한 필자는 국과수의 55페이지짜리 요약보고서뿐 아니라 4만 페이지의 태블릿 사용기록 로 데이터(raw data)를 확보하여, JTBC와 검찰 보유기간 동안에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내심 태블릿 조작 의혹의 진실을 조만간 밝혀낼 수 있으리라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포토라인에서

그러나 그 다음 날인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은 필자에 대한 사전(事前)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의 것으로 확인한 바 없다”는 국과수 측 증언으로, 다시 조작론이 확산될까 두려운 검찰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 판단했다.

필자는 내심 ‘과연 법원이 이러한 검찰의 무리수에 손발을 맞춰줄까’ 싶었다. 실제 2016년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된 1만 7000명 중 사전 구속된 피의자는 단 3명뿐이었다. 그것도 “김정일과 박근혜가 주석궁에서 그룹섹스를 했다”는 수준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인물들이었다. 필자가 알기로는 공적(公的) 사안에

대해 구체적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이 사전 구속된 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없다. 또한 나중에 알았지만, 현재 OECD 국가 내에서도 없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선임한 서정욱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역시 “도저히 구속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태블릿 조작설을 공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도록 엄포용 구속영장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경우, 검찰과 JTBC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감안해보면, 검찰이 실제 구속을 목표로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미디어워치의 기자들, 주요 독자 후원자들과 미팅을 하면서 만일 구속될 경우, 미디어워치 운영에 대해 미리 대비를 시켰다.

5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생애 최초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다. 일단 포토라인의 기자들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금껏 기자들은 수많은 태블릿 조작 의혹에 대해 침묵해왔다. 그러므로 오히려 포토라인의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필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간략한 발제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할 기회도 없이 검찰 측 직원들에 의해 재판장으로 끌려 들어갔다.

지금껏 검찰은 포토라인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 주장해왔다. 그러나 막상 그 알 권리를 가장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질의응답의 기회는 없었던 것이다. 그럼 대체 피의자의 사진이나 찍어 보여주는 게 말 많고 탈 많은 포토라인의 주요 목적이었던 말인가. 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포토라인 출석 시 원하는 피의자(被疑者)에 한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구속

- 2) 그렇게 재판장으로 끌려간 이후부터는 사실상 피의자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할 기회는 박탈당한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이다. 그 비공개 재판에서 판사는 JTBC 측 주장을 읽어주는 수준이었다. 필자가 반박하고자 하면,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냐”며

음박질러댔다. 판사는 심지어 자발적으로 필자를 응원하러 온 미디어워치 독자들의 기자회견까지 문제 삼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필자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구속영장실질심사도 공개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난 후, 필자는 구속을 확신했다. 1 시간 정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아직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으므로, 필자는 수용자복이 아니라 민간 체육복을 입고 단독 수용자실에 갇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복도에서 드루킹과 마주쳤다. 드루킹은 밝게 웃으며, 교도관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필자는 서울구치소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겠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예상대로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본격적인 수감(收監)생활이 시작되었다. 필자는 우선 CCTV 가 장치된 독방(獨房)으로 배치되었다. 당일 면담 때, 교도관은 “큰 충격을 받아 당장 수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인물로 분류되어, CCTV 로 적응 상태를 지켜본 뒤 나중에 CCTV 없는 방으로 옮겨주겠다”고 했다.

수용복 등 각 장 수감생활 용품을 챙겨주던 다른 교도관은 잠깐 필자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미디어워치 애독자입니다. 제가 해드릴 건 없지만, 변희재 대표님은 ‘젊은 보수(保守) 인사로서, 기죽지 않고 수감생활 당당히 잘하더라,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 년간 이 교도관의 주문을 지키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롯데 신동빈, 과자 한 봉지 안 돌려더라”



연쇄살인범

강호순.

서울구치소는 상층·중층·하층으로 분류되고, 각 방은 숫자로 지정한다. 필자가 처음 배치된 곳은 '3 상 1', 즉 상층의 3 번 실의 1 번 방이었다. 각 실의 1 번과 2 번 방은 독방이다. 교도관은 "변희재씨같이 호불호가 확연히 갈리는 인물은, 자칫 혼거방(混居房)에 있을 때 싸움이 날 수 있으므로 독방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필자가 복도를 지나갈 때 "변희재 파이팅!" 이런 말을 듣기도 했고, "야 이 xxx 죽어버려!" 이런 말을 듣기도 했다. 그렇게 독방은 주로 필자와 같은 정치범, 혹은 흉악범들이 쓰기 마련이다.

3 상을 관리하는 교도관은 50 대로 연배가 좀 되는 인물이었다. 이분은 필자의 적응을 돕겠다며, 오후 시간이 되면, 필자와 2 번 방의 인물을 함께 불러 커피타임을 가졌다. 주로 교도소 내의 일화나 시사(時事)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필자는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아, 교도관과 2 번 방의 인물이 나누는 대화를 듣는 정도였다. 2 번 방의 인물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운동장에서 만나, '당신은 어차피 또 들어올 테니, 에어컨이나 설치해놓고 나가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한 "롯데의 신동빈 회장은 여기 들어와서, 이웃 방에 과자 한 봉지 안 돌리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눈에 띄게 잘생긴 외모에, 정치·시사 관련 발언을 거침없이 하기에 필자는 '내가 모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혹은 국정원 출신 인사인가' 싶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0 년 이상 수감되어 있는 강호순이었다.

약 한 달이 지난 뒤, 필자는 CCTV 가 없는 11 상 1 번 방으로 옮기게 되었다. 드루킹은 바로 이웃한 12 상 2 번 방에 있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1 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2 번 방으로 들어왔다. 이 두 사람은 필자가 석방될 때까지 약 1 년간 운동을 함께 나가게 되어, 간략하나마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드루킹
김동원.



고영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법원 출정
작 용수 함을
책 후자. 않아
논란이 됐다.

